The idea of having a centralized place for sharing academic information of all sorts is plausible.

However, there are existing websites that inform and promote a subset of what is being proposed here.

For example, check out [Merlot.org](http://merlot.org/) <[http://Merlot.org/](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Merlot.org%2F&sa=D&sntz=1&usg=AFQjCNGYOfJKP5nL5Yowjh-RLoHDE3Lqvg)>. It is a repository of online instructional materials, contributed by teachers/faculty for use by interested individual. It has a few interesting features, like peer and editor reviews. Merlo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yet in my opinion, not being used widely.

Profess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are generally well advertised in the U.S.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organizes several annual conferences and seminars.  Interested individuals in the civil engineering community know about them and receive emails from ASCE about such events on regular basis. I doubt another source of information on such events would be widely used, at least by the civil engineering community in this county. By the way, ASCE has a global reach, many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across the globe (including in South Korea) are well aware of

ASCE and its activities. As far as I know, many of the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in the same situation, they are well connected with their constituents and sister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idea of having presentations, lectures,... reviewed and published online is very appeal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of the information. But, why would ASCE, the copyright owner, allow that kind of information to be distributed freely online? What is in it for them? Most such professional organizations view conferences and publications as a source of income. Unless you have a business model that works for them, they are not going to give you permission to use/share their content online.

Further, what you are proposing might be useful for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about such professional activities, but is the public really interested in what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have to say about recent advances in technical areas related to transportation, structures,...? I doubt it.

Your idea might work if you can identify areas of activities that are of interest to a broad cross-section of the population, the activities do not fall under the control of well-establishe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you entice the producers of the information/content to share it via the site you are envisioning.  I may be wrong, but I fear that the landscape of onlin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professional areas has been explored and somewhat saturated with websites of all sorts (here is another example: [efunda.com](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efunda.com&sa=D&sntz=1&usg=AFQjCNEFiomYa0qJ5cxL0knWNr44azm1vg) <[http://efunda.com/](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efunda.com%2F&sa=D&sntz=1&usg=AFQjCNF-5O2OiJQPlGSmM8AQeAp13EEi9A)>). You might be able to identify a niche area here, but your client base may not be large enough to warrant the effort.

Merlot website 링크를 보내줬는데 내가 보기엔 아빠가 말한 아이디어와 완전히 무관한것같아. 지금 우리가 할려는 것은 website that can advertise an event (seminars) in a non-discriminatory fashion to a larger audience. 그것을 하는 참에 우리는 social network aspect 를 집어 넣는거지.

"Profess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are generally well advertised in the U.S.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라고 말했는데 KSEA 에서 하는 IP Forum 도 잘 advertised 됬다고 볼 수 있지 않아? 재미과학자 협회가 있고 회원들도 많고 그들과 소통하는 email list 도 있을거고 어떤 organization 의 모든 세미나들은 주로 잘 advertised 됬다고 난 생각해 - 안그러면 사람이 없는체 세미나를 할 순 없잖아? 다만 우리는 이 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학생들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세미나를 하는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일. 모든 organization 이 자기 세미나에 아니면 conference 에 오게하는 방법들은 다 있겠지, 없으면 그게 이상한거고,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organization들을 한곳에 모아주는거지. avand 아빠가 "ASCE has a global reach, many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across the globe (including in South Korea) are well aware of"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게 그게 아니잖아. seminar 아니면 conference 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지. 우리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90mile radius 이내 organization "X" 가 주최하는 seminar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advertise 해주는거지, 그리고 우리가 공짜로 advertising 을 해주면 이 oragnization/회사들이 손해보는것은 없잖아?

지금의 문제는 이거다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patent 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면 내 seminar 를 sponsor 아니면 연관되있는 회사/organization들이 자기 회사사람들에게 알리겠지, 와달라고 그치? 근데 만약에 아빠가 patent 에 관심이 있어하지만 이 세미나를 sponsor 아니면 연관되있는 회사/organization과 아무 연관이 없다하자. 그럼 결국엔 이 세미나는 closed/restricted 세미나가 되는거지, 아는 사람들만 오는것.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가 이 세미나에 연관되지 않은 더 많은,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reach out 하는 면에서 유용하다는거지.

그리고 avand 아빠가 지적한 또 하나의 point는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왜 공짜로 비디오를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주겠느냐 였어. 내가 아빠 아이디어에 붙여서 만약에 세미나를 비디오로 찍어서 온라인상에 올려서 이 세미나에 참석치 못한사람들이 볼수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동시에 forum 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discussion 을 하면 어떨까? 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써봤어.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리 웹사이트의 핵심요소 가 아니니깐. 핵심요소는 advertising 해주는것. 음. 난 이렇게 생각해보았어 "But, why would ASCE, the copyright owner, allow that kind of information to be distributed freely online? What is in it for them? Most such professional organizations view conferences and publications as a source of income." 그들이 특별하게 우리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릴 이유가 없어.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림으로서 그들은 돈을 만들어낼 방법도 없어. 하지만 그들이 세미나를 개최할땐 주로 다른 information 에 대해 세미나를 하겠지 안그래? 똑같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겠지. 그럼 한번 세미나하고 더 이상 안할거면 차라리 뭐 세미나를 한 2주일 후에 그 동영상을 올리면 어떨까? 그러면 비록 돈을 생산하진 않겠지만 그들은 자기 회사/organization 에 대해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미지 making 도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에 세미나-ranking system 까지 도입하면 (이 회사/organization 이 가장 좋은 세미나를 준다 --> 다른 회사/organization 들이 보고 초청도 할 수도 있겠지?) 그들에게도 나쁠 것은 없다 생각해. 또 이렇게 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줄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본건 그것들.

또 좋은 지적: "Further, what you are proposing might be useful for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about such professional activities, but is the public really interested in what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have to say about recent advances in technical areas related to transportation, structures,...? I doubt it."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general public은 그런것에 관심 있어하겠냐? 별로 그럴것같진않아.

맞는소리야. ㅋㅋ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phrase 을 했어, 이 웹사이트는 specialized field 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target 하기 위해 사용될꺼라고. 하지만 그보단 더 많은 일반인들도 사용할수있고 이 social network 은 여기저기 모든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사용할 social network. 그럼 누가 또 물어보겠지, 왜 또 social network 을 만드냐. 이미 Facebook, twitter, google + 같은 거대하고 성공한 social network 가 있지않느냐, 왜 또 만들려하는냐… 라고. 그럼 이 말을 Facebook 에게도 또 말할수있겠지. 너희들은 왜 생겼냐? 이미 twitter, myspace, linked 가 successful 하게 social network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야: 우리가 Facebook 을 능가하는 social network website 를 만드는게 목표가 아니다. 다만 우리는 advertising 을 해주는 website 를 만들고 싶은것 뿐이고 그것을 하는 참에 이런저런 feature 들을 include 해보는것은 어떠냐? 하고 아이디어를 냈었고 특히 지금까지 이런 생각/운동이 없었기에 특허도 받을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끝.

근데 특허는 뭘로 받을 생각이야? 그니깐 어떤 내용